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4호 [루게 제25613호] 주제 106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경축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있는 속에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사회주의 승리의 렬명을 알리며 웅장화려한 렬명거리가 보란듯이 솟구쳐 올랐다.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구상과 전유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렬명거리건설을 단순한 거리건설이 아니라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수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나라의 강대성과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수호전으로 여기고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렬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과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변혁을 이룩해가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안고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 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렬명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삼가 올리는 충정의 선물이다.

아담한 다층건축군, 웅장화려한 초고층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조형화, 예술화, 복식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어 주체건축예술의 미려와 사회주의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렬명거리가 완공됨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과 봉남산지구가 백두산대국의 매력을 상징할수 있게 훌륭히 전면되었으 며 교육자, 과학자들과 인민들을 위한 만부의 별천지가 또 하나 펼쳐지게 되었다.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실천이고 위대한 당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전군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과시하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렬명거리 준공식이 13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 만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러운 대형구구들이 떠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조국을 백승의 길, 비약의 길로 이끄시어 세계가 알지 못하는 거창한 민족사적 대변혁을 안아오시며 이 땅위에 천지개벽의 시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축송같은 《만세!》의 환호를 여쳐올리었다.

2면으로 계속

#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들, 녀성과학자가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심가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희동지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 대표들,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과학자, 교육자, 청년학생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태양절건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측



비롯한 해외동포측 하단, 대표단들,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건설 평양지구 대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 무관부부들, 태양절건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식사회를 최봉희동지가 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지리완공의 장쾌한 승전포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천만군민의 자랑찬 승리의 보고이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더욱 환희롭게 장식하는 경축의 축포성이라고 말하였다.

려명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고의 문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뜻이 응축되어있는 인민사랑의 영원한 기념비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직 당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을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3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렬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신데 이어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렬사의 명세를 다지신 봉남산에서 조선혁명의 렬명이 밝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거리를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해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렬명거리건설 전투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동원전을 전투지휘하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살림집 및 공공건물설제로부터

전력체계구성과 불장식, 원림복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력량전성과 시공, 자재보장 등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고 필요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연설자는 올해에도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어 뜻깊은 태양절까지 공사를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렬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렬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하신 영상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에서 혁명하는 보람과 생의 희열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시라고 격정을 리치었다.

그는 금수산지구에 펼쳐진 이 희한한 전원은 렬명거리건설을 맡기하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총정과 애민현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 3 면으로 계속



#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2 면 에 서 계 속

려명거리는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 예술의 척도이며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리상거리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방향에는 정중성의 원칙에서, 봉룡네거리의 영생탑방향에는 상징성의 원칙에서 아담한 다층건축과 웅장 화려한 초고층건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있는 려명거리는 건축의 실용성과 조형화, 예술화측면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주체건축,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이다.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선 전기선, 선 미학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 태양빛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기절약기술들과 지붕 및 벽면복합기술 등 최신헌공기술들이 도입되어 에너지를 절약하며, 녹색형거리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상징인 려명거리는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움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려 솟아난 만리마시대의 자랑스런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같은

호소를 피뎀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건설자들은 방대한 복부피해복구전투까지 하면서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에 비해 두배가 훨씬 넘는 려명거리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기적중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려명거리전역을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으로 여기고 단숨에의 정신으로 70층살림집준공사를 단 74일만에, 외벽타일붙이기는 13일만에 끝낸것을 비롯하여 만리마시대의 건설신화들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싸우는 고지에 탄약과 식량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최우선 생산보장한 전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온 나라 인민의 거세찬 지원열풍과 야간지원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는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참으로 려명거리건설은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과 사회주의조선의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 원부들의 정수리에 몇백발의 핵폭탄을 더뜨린것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안긴

력사에 길이 빛날 승리며 특기할 대사변이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비범한 사상과 영도, 강철의 신념과 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새시대를 이 땅위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쳐 응대한 설제도따라 기세충천, 용기백배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지리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집중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연설자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깃부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백옥같은 충정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처럼 수행의 유순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뜨들이 자력자강의 끈적끈적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우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려명거리전투장에 내려치던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제2, 제3의 《려명거리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려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시설의 편리운영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을 책임적으로 정상관리, 정상운영함으로써 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뜨겁게 안겨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려명거리완공의 기쁨을 우리 인민들과 함께 나누시며 승리의 려명이 밝아올 백두산대국의 무궁상당한 제일을 축복해주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만리마를 란 기세

로 질풍노도처럼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울려 퍼지는 천하게 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이 땅위에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레프를 맺으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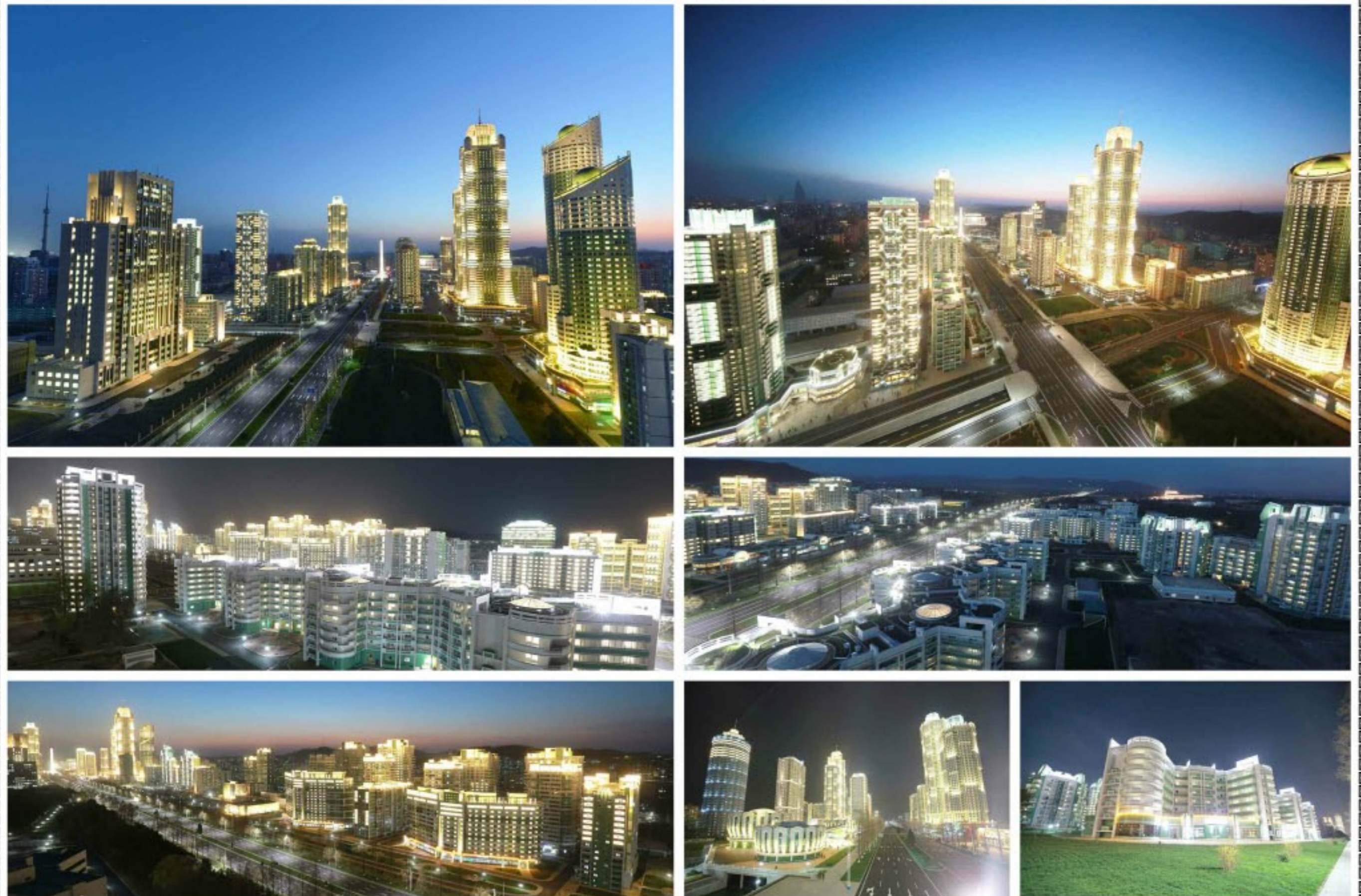
순간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전갈하고 수많은 고무봉선들이 날아올라 위대한 로동당시대의 상징으로 훌륭히 솟아 빛나는 려명거리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준공식에 이어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군들과 함께 전체 참가자들은 완공된 려명거리를 돌아보았다.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솟아오른 려명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명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폭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위력, 지역자강의 지랑스런 창조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정지보도반



# 감 사 문

## 려명거리를 만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파시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에게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만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 웅장화려하게 솟아올라 태양절을 경축하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긍지와 환희를 더해주고 있다.

태양의 성지지구를 사회주의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인민의 제일락원으로 려지개혁시킨 려명거리건설의 완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립하신 불기항적위력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삼가 올리는 충정의 선물이며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실현해나가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이 꿋꿋히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승리를 이룩한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일심단결의 불기항적위력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전통으로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 둘도 없는 인민의 리상거리,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 사회주의의 광명한 데로를 따라 진흥노도로 내달리는 영웅적 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남김없이 려명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전국의 지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전유적인사를 보낸다.

려명거리건설은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헌신하고 생애까지 장그려 맡ალ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압박을 배후의 굴항없는 공격정신, 견결한 사회주의수로 정진으로 신안이 깃부서버리기 위한 치열한 대적전이었으며 만리마를 띤 기러기 단속에 비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일당겨오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었다.

우리 당은 주체조선의 첫 수호탄시험의 완전성공에 걸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만동들의 핵공격위협과 초강도제재가 극도에 달하고있던 지난 해 3월 대규모의 려명거리건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로운 영웅신화,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여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거대한 위력과 필승불패성을 다시금 높이 떨칠때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였다.

모든 굴항없는 공격정신과 드팀없는 강국건설의지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은 군인련합자원의 거대한 위력을 총폭발시켜 만리마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려명거리를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는 혁명적 공훈을 세웠다.

은 행성을 걸걸하는 대전설전투의 장대한 승전포성은 당이 가리키는 최전선에서 불과구를 열어 제끼는 혁명적당군, 건설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장병들과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체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전인련합의 실천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는 격진장대에서 최정예전투대로로 위력발전 조선인민군 제521건설사단과 제267군부대, 제968군부대, 제522군부대, 제10215군부대, 조선인민내무군 제3307군부대의 영웅적사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무쌍하게 투진하는 전투정신으로 70층, 55층 초고층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가장 어렵고 힘겨운 주라적대상물에서 아침과 저녁이 다른 눈부신 건설속도를 창조하여 려명거리의 만리마가 솟구쳐오르게 하는데서 핵심적, 선도적역할을 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강철기도 돌러 고층살림집들을 들어세우고 불타는 일기조건에서도 단 13일만에 초고층살림집들의 외벽라이프공사를 결속한 건설관철의 투쟁기공과 모든 건설물들을 당에서 비준하여 준 설계대로 먼 후날에도 손색없을 만년대전의 창조물로 일떠세운 천년백일, 만년보존의 일본세는 조국보위전장에서 조국건설에서도 불거늘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의 군인정신, 군인본색, 군인기질의 빛나는 발현이다.

군인련합자원의 주동이 되고 기수가 되어 화악에 불이 달린것처럼, 북쪽처럼 맑게진 건설공사를 다그치면서 미친듯 공중전투와 봉사사업, 도로와 하부망공사에 돌입하여 일당백공적정신으로 봉사전반을 이끌고나간 인민군인민들의 무비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려명거리는 마침내 당에서 정해진 기일안에 완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건설혁명의 보람찬 진군길에서 언제나 당의 명도에 충실하여온 대외건설지도국과 속도전정년돌격대, 철도성, 수도건설위원회, 원유공업성을 비롯한 주요시공단위들과 평양시, 각 도들의 대 전우원들은 불꽃피는 백열전을 벌이며 더불어 이어 조선을 빛내일 위대한 명세가 어려웠는 용단신인대를 희한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었다.

우리 당의 주체적전투사상으로 똘똘히 무장한 설계가들은 당대한 설계도면의 집 하나, 선 하나에도 고결한 애국의 마음과 지혜와 열정을 다져 바쳐 백두밀림의 청신한 모습과 진전하는 주체강국의 장중한 기상, 눈부시게 비약하는 사회주의분명의 높이가 비껴있는 건설작전도를 훌륭히 완성하였으며 건축기술자들은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담한 건설공법들과 특색전투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여 주체건축법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의 성격에 맞게 정중성이 보장된 이따한 다층살림집지구와 융합화려한 교충, 초고층살림집지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거미안애 거리가 형성된 특색있는 거리, 예대 뜨기압각기술, 특색전투기술을 비롯하여 최선성과가 집약된 건축의 대결적, 려명거리가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현대적인 거리건설의 본보기, 표본이 마련되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

하는 주체건축의 새로운 면모가 뚜렷이 과시되게 되었다.

공사에 참가한 모든 군인들과 건설자들, 평양시민들이 혁명의 성지와 잇닿은 건설현장에서 자그마한 흙먼지도 일지 않도록 백옥같은 충정과 정성을 다하였으며 제철을 앞당겨 후지마다 푸른 주단을 펼쳐온 온 거리에 벽화가 단발하에 하여 화창한 4월의 봄명절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사상전의 진중포화, 면수포화, 명중포화로 려명전역을 들끓게 한 혁명적사상공세는 온 건설장에 당의 권위보위원, 사회주의수호전, 인민보위전의 혁명적열정이 새차게 내려지게 하고 270여일의 낮과 밤이 만리마속도창조의 맹렬한 정령열풍으로 이어지게 한 위력한 화선식정치사업, 형민식 사상사업방법의 본보기로 우리 당 전투기공적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당의 부름이러면 수천의 머나먼 함복도 북부의 해부군전선에도 용아 달려가 사회주의선경을 제일 먼저 펼치고 수도의 한복판에 꿈의 도시를 발붙여 하는 함흥경의 거리를 우뚝 올려세운 려명거리건설자들의 불사신과 같은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려명거리는 천리마의 고향 강선과 더불어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으로 후세에 길이 전래지게 되었다.

려명거리건설은 당의 명도마라 전인민적공정군의 영웅사시를 펼쳐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이 최대로 발휘된 격동하는 만리마시대의 속도였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천리마아일공장, 천리마건설총공정, 대인건설유리공장, 평양326전선공정, 안주부조공정, 본원발포공정과 화강석광산들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싸우는 건설에 총포탄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의 불길높이 각종 견제와 일비불을 최후선 김강생신보장하였으며 내과과 성, 중앙기관들,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이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여 그 어떤 제재와 봉쇄에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공화국의 무한한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수천수만명의 청년전위들과 평양시민들이 매일 같이 전우원들과 밤을 새우며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고 온 나라가 불신봉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감동적인 화풍은 당은 인민복을 누리고 인민은 당복을 노래하는 일심일체의 함모음,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세인의 놀라움과 찬탄을 불피어시켰다.

꽃길은 태양절을 앞두고 주체조선의 창조높이 울려퍼지는 려명거리건설완공의 환호성은 우리 당 명진조선의 위대한 승리와 인민대중계열주의 빛을 뿌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거대한 생활력을 시위하는 장엄한 선언이며 공화국의 전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최후발악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정수리에 몇백발의 핵탄탄을 퍼뜨렸것보다 더 무서운 피성백역으

로 된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두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패승을 면이여 이룩하며 강성민영으로 급속히 질주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모습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존엄을 빛내이고 행복을 꾸며나가는 자주적인민의 찬란한 군상이며 제국주의만동들의 멸망을 촉진시키며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진정한 영상이이다.

평안한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려명거리의 대전적군과 웅장한 자려는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향유하는 우리 인민의 포부와 리상의 높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명명강국의 휘황찬란한 재일을 가슴씩차게 예고해 주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벽사에 류려없는 거창한 대전적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만리마의 새시대를 일당에서 일여제인 려명거리건설 참전자들과 지원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값높은 헌신의 자욱은 통일민영하는 혁명의 수도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사에 빛나는 계지로 아로새겨질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불타는 애국충정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려명거리건설완공의 전인민적대승리를 안아오도록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대한 국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사회주의승리의 밝은 미래를 일당겨오는데 공헌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의 혁명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

오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위업, 강국건설위업을 높이 만들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목표를 앞당겨 진행하여야 할 중대하고 책임적인 혁명파일이 나서고있다.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한 전체 전우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내리치는 만리마의 고비를 역 세계 물어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 연속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을 우뚝이 가장 광활한 인민의 도시로 전변시키며 조국방방방방에 료룡망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기 위한 새 건설전구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위력을 힘있게 펼쳐

나가야 한다. 건축부문에서는 건설의 대연영기를 펼쳐나가는 약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의 건축이화사상이 구현된 건강건물, 특색전투, 다기능화된 건설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우며 경제공급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실현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물명강국의 지평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 과학자들을 비롯하여 려명거리에 새집들이를 하는 주민들은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떠맡고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수고와 지성이 숨겨진 모든 건축물들을 알뜰하게 가꾸며 운영단위들에서는 특색전투기술이 도입된 건축물들과 편의봉사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 끊이지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한다.

영웅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백두산연령봉, 싸움준비열풍의 불노기너에서 무적강군의 위력을 더욱 뽐내며 다져 끈질기게는 우리 당과 국가,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보위하며 세상에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행복을 안겨주려는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땀과 눈물의 행군길을 활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세계적인 건설기적들을 편이여 창조해내는 우리 국가의 무궁무진한 국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 우리 당의 강국건설속도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결정적과목을 일여제끼며 모두가 승리의 월계관을 입고 만리마선구지대회를 몇몇이 맞이하여야 한다.

세계는 일심단결과 자강적으로 강대하고 만리마속도로 북풍노도로 내달리는 영웅조선이 이 하 높아, 이 땅우에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성공함, 인민의 피상사회를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이 승리의 기세드높이 일심단결하여 조국보위최초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결집되는 데비야, 대혁신을 일으키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감에 제국이마지하리라하는것을 굳게 믿는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주제 106 (2017)년 4월 13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주주의를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1 800만부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3차례 걸쳐 일본돈으로 48억 599만 390부에 달한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양철에 즈음하여 마호루드 아흐메드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13일 리용호외무상에게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만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조 외교단과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울화가족일행, 외국어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양철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13일 리용호외무상에게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만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철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버홍

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2일 꽃바구니가 전경되였다.

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 경축행사 대표들 만경대 방문,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우리머 참가 인사들 드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명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조선혁명박물관이 세상에 볼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으로 꾸러진데 대한 해설을 붙으며 그들은 여러 호실들에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 경축행사대표들이 13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들은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추념하는 조가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일여제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한평생 혁명가로서,

이 있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함 레일이 있음을 집결하였다. 이날 대표들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된 태양조선의 대국보안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총서관에 들어선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이화작품을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계승해나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마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의로 가솔 붙였다. 【조선중앙통신】





#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친근한 부름 - 자애로운 우리 아버지

##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 대 양 절 경 축

4월의 봄빛이 짙어진다. 산과 들마다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온갖 새들의 지저귓소리가 봄노래마당 유정하게 울려 퍼진다. 마치 온 겨우에 이 계절을 기다려 그 향기를 아껴온듯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아름다운 봄향기, 봄의 훈향이 내 나라 강산에 가득히 넘쳐흐르고 악동하는 절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밝은 모습인 양 거미와 마음, 흥인과 유정지마에 행복과 기쁨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끊없이 메아리쳐간다.

해마다 4월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하나의 생각,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전서는 세월의 굴레를, 한눈 다 맞으며 끊임없는 헌신과 파고의 길을 이어가시고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꽃피는 봄님만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봄날의 태양과 같은 따뜻한 온기가 사랑으로 우리 인민 모두의 삶을 꽃피워주고 빛내어 주신 절대왕권에 대한 끝없는 갈망의 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피울 수 있습니다.》  
친근한 아버지!  
우리 수령님의 이인위천의 위대한 생애를 돌이켜볼수록 이 나라 친만자들의 심장마다 애소중히 아로새겨진 고귀한 무릎이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날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있다. 단 한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단 한번이라도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날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부부자가 되지 못하였을것이다. 나에게서 제일 거르고 행복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속에 있을 때이다라고 하시며 나는 인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고 그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시었다.

한평생 온 나라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의 친애배가 되시어 주시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배워 주시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들수록 잊지 못할 하나의 화폭이 눈앞에 솟아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여름이었던 농촌마을의 평범한 살림집문지방에 스스럼없이 앉아서 초소에서 보내온 그 집안들의 편지를 몰소 보아주시던 아버지수령님.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고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모두 헤아려 주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위인상이 어디에 한가운데만 아로새겨져있는 것이랴.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인민군부하가죽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며칠전 해군에서 복무하고있는 그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신 수령님께서는 아들이 참 똑똑하다고, 편지를 아주 잘 썼다고 칭찬하시며 어머니에게 아들이 무척한 책을 보내주었다고 따듯히 물어주시었다.

그 책을 구할수 없어 아직 보내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아들이 해군에서 복무한다면 그런 책이 꼭 필요할것이라고, 자신께서 보낸 책이 있으니 그걸 보내주라고 다정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순간 자기 귀를 의심하듯 《수상님께서 보시는 책을 팔아주어 주시라?》라고 되물은 후방이죽 어머니는 너무도 크나큰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진정 아버지수령님은 이런분이시었다.

어느때인가 학원원아들의 운동회에 몸소 참가하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한 소년 《아버지》라는 글씨를 쥐고 안락까와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께서는 아버지라고 하시며 그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함께

달피신분,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의 아관적인 폭력에 아버지 영웅이내 어떤 내 형제를 사랑의 힘에 안아주시고 오랜 세월 육친의 정을 기울여주시며 그 모든모든을 나려어엿한 억군으로 키워주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불비불비지만 전회의 나날 인민생활때문에 잠 못 이루시던 일군들에게 가정주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것이 무엇인줄 아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쌀이었다. 가족이 나 전쟁으로 고생많은 인민들이 생양이 없어 안락까와하지 않고 복성분배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 그로써 다심하게 가르쳐주시고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몸소 호미를 드시고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심으시며 농민들에게 포근농사의 원리와 우월성을 해설해 주신 아버지수령님.

80고령에 이르신 그해 한달 동안에라도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어 인민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차례나 지도하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피로가 쌓이고 목이 갈릴 때마다 명물을 마시면서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우리 수령님을 우리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라 부켜 부르며 절절히 그리고 마르지 않을수 있리라.

정녕 저 멀리 본계연선도시로 우리 조국의 북변 산간오지에 이르기까지 인민이 있는 그 어디

에나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명도의 자취가 뜨겁게 어려있고 수령님은 우리 인민 누구나의 마음속에 태양과도 같은 친애배의 모습으로 승영히 새겨져있으니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 인민의 피상과 꿈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그대로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의 전두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편애를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서계신다. 이 땅에 인민사랑의 대희원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 사랑의 숭고한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온 품이 있어 우리 인민은 대대로 수령님을 누리며 밝은 삶을 빛내어가고있다.

하기에 화창한 이 봄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에 떠날때를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인민의 행복넘칠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한껏 넘쳐나고있다. 그 한치의 메아리와 더불어 천만민들의 심장속엔 105년째로 맞이하는 뜻깊은 봄명절의 하늘가로 끊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본사기자 리남호

### 대 양 절 경 축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태양절경축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13일에 진행되었다.

민족화려의 정사마를 태양절을 맞이하는 학생소년들의 끊없는 기쁨이 장면에 차넘치는 속에 사정 《은세상엔 자랑하야 우리 태양절》로 공연은 시작되었다.

무대에는 합창 《태원수님은 우리의 해님》, 고음저대와 노래 《만경대는 꽃동산》, 2중창과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 온몸을 위한 경음악 《장군님 백마고 달피신다》, 남중창 《우리 원수님 최요이》, 민속무용 《명절맞이 부채춤》, 요순 《귀중한 시간》, 남독창 《나와 우리 영광》을 비롯한 다채로운 흥무예가 울렸다.

출연자들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며 천만사랑을 부여주시기 위해 수평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새 세대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시기 위해 천선사할의 열고 힘찬 길을 걷고있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는 바이올린독주 《장군님과 아이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렸다.

너중창 《원수님의 기쁨이여요》, 기타명창 《지리체로 면치자 사회주의 내조국》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가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대원수님의 따사로온 품 속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는 행복들이 마음속을 잘 보여주었다.

학생소년들의 광민과 희열이 넘쳐나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

들은 온 나라 아이들을 사랑의 한눈에 안아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우시게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내 조국의 앞날은 끊없이 휘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총창 《해님들 꽃밭이여》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제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은원수님의 발걸음마다 천리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학생소년들의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리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전룡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청년동맹, 관제부 분 일군들, 청소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수도의 거리들에 아름다운 꽃바다가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이 되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수도의 거리들이 아름다운 꽃바다를 장식하고 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 나갔다.

시당과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의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시인의 모든 구역, 군별에서는 겨울철부터 화초온실로의 온도보장과 꽃배에 힘을 넣어 많은 꽃들을 피웠다.

시인의 일군들은 활짝 피어난 꽃들로 시인의 거리들을 특색있게 장식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시인의 모든 거리들을 아름다운 꽃들로 특색있게 장식하기 위한 여러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선별된 여러가지 꽃장식형식안을 구역들에 보내주고 모든 구역에서 한겨울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관되게 밀고나간 사업에 힘을 넣었다.

새월이 흐른수후 더해진 가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펼쳐나 거리와 마을들에 아름다운 꽃바다를 장식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새살림과

##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에.에프.데.제.비.안.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모.스.라.와.자.말.하.이.더. 전.국.집.행.리.사.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방글라데시자리아대표단, 에.에.드.에.호.이. 출.라.이. 제.1.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

교원당대표단, 후코프 말 웨 스라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니벨란 합민족사회의 당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 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과 평양역에서 리상관,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과 우연진

초.조.제.비.비. 조. 조. 몽.골.민.혁.민.전.대.사. 버.스.라.와.자.말.하.이.더. 전.국.집.행.리.사.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교도사관 장사가 각각 맞이 하였다.

한편 이날 안토니오 라피에 리 팔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과 일행이 왔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리지 승영회의장을 단장으로 하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외침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메디위원회는 단장으로 하는 네.팔.조.선.인.주.주.의.인.민.공.화.국. 작.업.협.성-김.일.성.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에.리.나. 마.비.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조.선.인.주.주.의.인.민.공.화.국. 작.업.협.성-김.일.성.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에.리.나. 마.비.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주체사상연구구.엘.라.데.리.안. 에.이.코. 라.피.에.리. 술.람. 바.분.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말.공.라.데.우.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에.리.나. 마.비.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니벨란 합민족사회 대표단, 에.에.드.에.호.이. 출.라.이. 제.1.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방글라데시자리아 대표단, 에.에.드.에.호.이. 출.라.이. 제.1.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

## 애국총정의 넓은 대를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업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헌원은 그리움이 아름다운 노래의 선율로 울려 퍼지고 한치의 꽃바다를 걸친 뜻깊은 4월.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드 거워진다는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뚝두시 옥계동 33인민반 김진국동무의 가정에서도 일생애의 꽃바구니를 삼가 엮어가고있다.

이들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애배가 사랑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김진국동무의 아버지인 신천군 새김철동농장 관리위원장이었던 김원규동무는 로명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다.

어제날의 천대빌린 소작농을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으로,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는 대의원으로 키워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진후 나라의 농업혁명조 합조직에서 선구자의 역할

을 하였다고 붙여 넣지는 치하도록 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땀과 눈물로 주시고 육친의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정열을 따듯히 이끌어 주신 아버지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원규영웅의 삶이 영생의 언덕에서 빛나도록 해주시고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지켜선 영웅인 일군들로 키워주시었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크나큰 그 사랑, 그 은정을 되새겨볼수록 이들의 가슴은 되새김질로 세차게 높여주고있다.

턱을같은 총정의 한마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지휘하여 애국총정의 넓은 대를 이어가리.

이런 맹세로 김진국, 김진용 동무를 비롯한 온 가족의 가슴은 새지게 불라고있다.

어찌 이슬뿐이랴.

이 땅의 그 어느 가정, 그 어느 일터에서나 인민들이 심장으로 따지는 총정의 맹세와 4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 따라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 줄 불라는 맹서와 실천으로 4월의 날과 날이 흐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종준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오가미 경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비김성 조선주체사상연구조직 사무국장 겸 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여 일행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비김성 조선주체사상연구조직 사무국장 겸 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여 일행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 일본 교도 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 해외연교자가족들, 해외동포대표단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교자동맹위원회, 장자화, 류용성, 범리익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교자 박길순, 김철, 서순욱가족일행 등 13일 평양으로 돌아왔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리지 승영회의장을 단장으로 하

## 중국항일혁명투쟁연교자 재세영, 장자화, 류용성, 범리익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교자 박길순, 김철, 서순욱가족일행



중국항일혁명투쟁연교자 재세영, 장자화, 류용성, 범리익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교자 박길순, 김철, 서순욱가족일행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로코포네트 부회장이 오가미 경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 평양에 도착하였다.

